

행동의 가치는 그 행동을
끝까지 이루는 데 있다.

- 칭기즈칸 -

Part 2

PART 2

세무사 합격 수험전략

1. 세무사 합격전략(1차 시험)

- 회계학개론
- 세법학개론
- 재정학
- 상법(회사법)/민법/형사소송법

2. 세무사 합격전략(2차 시험)

- 회계학 1부
- 회계학 2부
- 세법학 1부
- 세법학 2부

1 세무사 합격전략(1차 시험)

세무사 1차 시험은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세법, 재정학, 선택과목(상법, 민법, 행정소송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재무회계와 원가관리회계는 회계학개론으로 묶여서 출제되어지나 별도의 과목으로 인식하고 수험에 임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재무회계, 원

가관리회계, 세법은 전형범위가 넓고 난이도가 높은 과목인 관계로 많은 절대 공부 시간을 필요로 하며 고득점을 맞기에 매우 힘든 과목인데 반해 재정학과 선택과목은 상대적으로 단기간내에 일정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전략과목으로 분류합니다.

세무사 1차 시험에서는 상대평가가 아닌 전과목 평균이 60점을 넘기면 합격하는 절대평가방식으로 합격자가 가려집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의 수험여건과 공부 스타일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세무사 시험은 그 특성상 전과목을 고르게 득점하고자 하는 것 보다는 과목별 특성에 맞는 수험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계학(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과 세법은 1차 시험뿐만이 아니라 2차 시험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과목입니다. 단기간내에 점수를 취득할 수 있는 과목이 아닌 만큼 1차 시험까지 2~3회독의 꾸준한 공부량과 시간이 필요하며, 2차 시험을 염두에 두어 주관식 연습문제를 직접 풀어보는 연습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1차 시험에서는 투입대비 점수가 쉽게 나오지 않는 과목의 특성상 시험이 다가올수록 어려운 부분을 Skip하여 공부범위를 줄이고 100점 만점이 아닌 본인의 목표점수(Ex. 60점)에 맞는 시간할애가 필요합니다.

재정학과 선택과목은 세무사 1차 시험의 합격을 위하여 반드시 고득점을 맞아야 하는 전략과목입니다. 상반기에 회계학과 세법 중심으로 공부하였다면 하반기에는 재정학, 선택과목에 상당부분의 시간을 할애하여 일정점수 이상(Ex. 80점)을 꼭 획득하여야 회계학과 세법에서의 점수부담을 덜면서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사 1차 시험과목

1. 재정학
2. 세법학개론
3. 회계학개론
4. 상법, 민법, 행정소송법 중 택 1

1. 재무회계

▶ 출제경향

재무회계 1차 시험 최근 7년간의 출제경향

구분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비율	순위
	이론	6	8	8	8	4	6	6	46	26.44%	
	계산	19	17	17	17	21	19	18	128	73.56%	
유형자산		4	3	4	5	3	2	4	25	14.37%	1순위
재고자산		2	2	2	3	1	3	2	15	8.62%	
금융자산		1	3	1	3	2	1	2	13	7.47%	
개념체계		2	1	1	1	1	3	2	11	6.32%	
수익의인식		2	1	1	-	3	2	2	11	6.32%	
자본		2	-	2	1	-	2	2	8	4.61%	
회계변경오류		1	1	1	1	2	1	-	7	4.02%	
리스		1	2	-	-	2	1	-	7	4.02%	
현금흐름표		1	1	1	1	1	1	1	7	4.02%	
주당이익		1	1	1	1	1	1	1	7	4.02%	
사채		-	1	1	1	1	1	2	7	4.02%	
총당부채		2	1	1	-	-	1	-	5	2.88%	2순위
차입원가		1	1	-	1	1	-	1	5	2.88%	
투자부동산		1	1	-	1	1	-	1	5	2.88%	
복합금융상품		-	1	-	1	1	1	-	4	2.30%	
재무제표		-	1	1	1	-	-	1	4	2.30%	
무형자산		1	1	-	-	1	-	1	4	2.30%	
자산기타		-	1	1	1	-	-	1	4	2.30%	
법인세회계		-	-	-	1	1	1	1	4	2.30%	
종업원급여		1	-	1	-	-	1	-	3	1.72%	
주식기준보상		1	1	-	-	1	-	-	3	1.72%	
관계기업		-	1	1	-	-	-	-	2	1.15%	
연결회계		-	-	-	2	-	-	-	2	1.15%	
환율변동파생		-	-	1	-	-	-	-	1	0.57%	
사업결합합병		-	-	1	-	-	-	-	1	0.57%	
기타		1	-	3	-	2	3	-	9	5.17%	

1순위에 속하는 주제들은 매년 꾸준히 출제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형자산, 재고자산, 금융자산은 7문제 이상 꾸준히 출제되고 있으니 꼭 학습이 필요한 주제입니다. 아울러, 1순위의 주제들은 25문제 중 최대 68%(17문제)까지 출제되고 있으니 필수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순위에 속하는 주제들은 주제별 선택적으로 1문제정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3순위에 속하는 주제들은 고급회계와 관련되어 있는데 최근 출제되고 있지 않습니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분야입니다.

▶ 수험전략

세무사시험 준비의 출발은 회계입니다. 회계공부가 어느 정도 되어있어야 세법공부도 수월해 집니다. 세무사시험에서 회계는 1차에 회계학개론(재무회계 25문제, 원가관리회계 15문제), 2차에 회계학 1부(재무회계 60점, 원가관리회계 40점)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회계의 특징은 많은 시간을 투입하여 공부해도 점수가 크게 오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면 공부를 하지 않으면 과락의 위험이 있어 그 적정 점수인 50~60점을 유지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일단 50~60점으로 끌어올리는 단계와 유지하는 단계 그리고 그 이상 점수를 끌어올리는 단계로 구분하여 시간을 할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수험생들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회계원리를 무시하지 말 것

아기가 걷기 위해서는 몸을 뒤집고 기는 연습부터 합니다. 모든 배움에는 순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회계는 회계원리부터 시작합니다. 회계원리가 초석이 되어 그 위에 중급회계와 고급회계를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뿌리가 약하면 열매를 맺기 힘듭니다. 반드시 회계원리를 충실히 학습하기 바랍니다.

둘째, 기본내용에 충실할 것

중급회계를 공부할 때 주로 기본반 과정에서는 주제별 기본내용을 다룹니다. 그러한 기본내용을 위주로 충실하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주제별 특이사항, 기타 등의 내용은 기본과정 다룰 때 절대로 배제 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것을 모두 공부하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기본내용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비싼 음식도 많이 먹으면 탈나는 법입니다.

셋째, 고득점을 위해서는 특이사항을 정리할 것

고득점을 위해서는 기본내용에 특이사항을 반영한 내용을 학습하여야 합니다. 기본내용이 충분히 학습된 상태에서 특이사항을 공부하여야 제대로 자기 것이 됩니다. 특히 이러한 특이사항만 별도로 서브노트를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이사항은 주로 종합반에서 학습하게 됩니다.

넷째, 시험에 임박한 경우 선택과 집중을 할 것

시험에 임박한 경우(주로 4월정도 남았을 때) 기출분석을 통해 1순위는 무조건 학습, 2순위는 선택적 학습, 3순위는 과감하게 제외시키는 것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모의고사는 가급적 볼 것

모의고사는 본 시험을 보기 전에 모의로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점수보다는 모의고사를 통해 푸는 순서, 풀 문제와 풀지 않을 문제를 선별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시험은 제한된 시간 내에 풀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어떤 유형의 문제를 풀지, 안 풀지를 선별하는 기준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문이 거의 한 페이지가 된다면, 아니면 내가 선택하지 않은 분야에서 출제된 문제들은 아예 보지도 않는다는 어떤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 강의주안점

재무회계의 학습량은 방대합니다. 세무사시험이 재무회계만 공부해서 합격하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 최소시간과 노력으로 최대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학습하여야 합니다. 이에 본 강의는 그 특성에 부합되도록 강의를 진행될 것입니다. 강의가 주안점을 두고 있는 특징 몇 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기본에 충실하고 핵심위주의 강의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기본에 충실한 강의가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기본에 충실하고 핵심위주로 강의한다는 것은 불필요한 내용은 제외하고 꼭 필요한 내용을 위주로 진행되어 학습하는데 혼선을 최대한 줄여 같은 실력이지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동일한 실력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강의를 말합니다. 물론, 여기서 가장 주의할 점은 수험생들이 따라와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복습입니다. 아무리 좋은 강의를 제공되어도 수험생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소용 없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점입니다.

둘째, 효과적인 공부방법의 제시

재무회계 1차는 정확히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푸는 것이 더욱 중요하며, 1문제당 1~2분 내에 풀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실제 시험장에서 지문을 하나하나 다 읽고 유형을 파악할 시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빈출되는 문제들은 미리 그 유형을 파악하여 반복학습을 완료해 놓고, 실제 시험장에서는 문제를 보면 즉시 풀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1차 시험에 적합한 풀이방법을 습득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즉, 동일한 문제라도 다양한 풀이방법(예: 분개, 그림, 산식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중에서 1차 시험에 적합한 풀이방법이 분명 있습니다. 심지어 시간 부족 시 찍는 방법도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강의 진행 시 해당 주제별로 출제 가능한 문제의 유형과 가장 적합한 풀이방법은 무엇인지를 그 때 그 때 제시하여, 수험생들이 이를 터득하는데 소요되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셋째, 단계별 학습 프로그램

본원의 세무사 교육프로그램은 크게 ①입문과정 ②기본이론과정 ③정규(종합반)과정의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이러한 단계별 학습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단계가 진행됨에 따라 조금씩 깊이를 더해 가면서 학습이 진행되기 때문에, 회계나 세법을 전혀 접해 보지 못했던 수험생들도 큰 어려움 없이 따라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단계에 걸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만 중간에 포기 없이 따라온다 해도 벌써 3회독을 한 것이 되어 기본적인 체계가 자연스럽게 정립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마지막 단계로 “객관식 문제풀이” 과정을 통해 빨리 푸는 방법을 추가적으로 습득한다면, 1차 시험에서 목표로 하는 점수를 획득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2. 원가관리회계

▶ 출제경향

세무사시험에서는 회계학 1부 40문제 중 15문제가 출제되고 있으며, 과거의 기출 문제 출제경향을 보면 전 범위에 걸쳐 골고루 문제가 출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용	출제연도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원가관리회계일반	1	1	1		1	1		2		
보조부문/개별원가계산	1	2	2		3	1	2		3	1
종합원가계산	1	2	1	2	1	1	2	1	2	1
결합원가계산	1	1	1	1	1	1	1	1	1	1
(초)변동원가계산	2	1	1	1	1	1	3	1	1	2
활동기준원가계산	1	1	1	1		1		1	1	
원가추정/학습곡선	1		1	1		1	1			1
CVP분석	1	2	1	1	4	2	2	3	1	2
관련원가분석	2	2	1	2	2	3	3	1	3	1
자본예산			1	1						1
불확실성하의 의사결정								1		
종합예산	1	1		1	1	1			1	1
표준원가계산	1	1	1	2		2	1	2	1	2
판매부문/투자중심점 성과평가	1	1	1	1					1	1
대체가격결정			1		1			1		
전략적 원가관리	1	1	1	1				1		2
계	15	15	15	15	15	15	15	15	15	16

▶ 수험전략

1차 시험에서 원가관리회계의 배점은 37.5점 정도입니다. 세법, 상법, 재정학 등 다른 과목에 비하면 절대 배점이 낮은 과목이지만 공부 기간이 길지 않은 수험생들

이 재무회계에서 고득점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회계학에서 과락을 면하기 위해서 혹은 회계학에서 평균을 너무 깎아 먹지 않기 위해서는 원가관리회계에서 안정적인 득점을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처음 회계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재무회계보다 어렵다고 생각될 수 있는 과목일 수 있으나 1차 시험에서 최소한 10문제 이상은 맞추겠다는 목표를 세우셔야 합니다.

원가관리회계가 재무회계나 세법과 다르게 어렵다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이는 생경한 부분이기 때문일 뿐이고, 반복 숙달과 연습이 따르면 오히려 재무회계, 세법보다 쉽게 정복할 수 있는 과목일 수 있습니다.

1차 시험에서 원가관리회계는 서술형 문제가 많이 출제되지 않습니다. 출제된다 하더라도 논리와 계산과정을 이해하고 있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므로 다른 과목들에 비해 암기에 의존하는 비율이 현저히 낮습니다. 재무회계나 세법과 달리 원가관리회계는 철저하게 이론을 학습하는 분야이므로 계산 문제를 이해하는 위주로 공부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점은 시험은 주로 케이스 위주의 계산문제로 출제되기 때문에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반드시 계산문제에 대한 적응을 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내용을 이해하셔도 사례 문제가 잘 풀리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반드시 문제풀이에 대한 적응까지 끝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출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원가관리회계는 다른 주요 과목들과 달리 매년 개정되는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들은 이미 과거의 시험에서 출제된 적이 있는 것들입니다. 다만 같은 내용이지만 적당히 변형 또는 응용되어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범위를 넓히는 공부보다 이해하는 공부가 중요합니다. 최근 몇 개 년도의 기출문제를 완전히 이해하고 풀 수 있을 만한 실력을 갖췄다고 하면 아마 1차 시험에서 다른 수험생에 뒤지는 점수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 강의주안점

원가관리회계의 강의방법은 철저히 수험전략에 맞추어 짜고 있습니다.

풍부한 실무사례를 통한 각 항목의 철저한 설명으로 이해를 극대화하며, 필수예제 및 다양한 연습문제풀이로 이해된 내용을 (계산)문제에 적용하는 훈련을 지속적

으로 해나가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기출문제 분석을 통한 다양한 사례연습으로 응용력을 극대화하게 됩니다.

이해되지 않는 내용은 절대 문제풀이 능력으로의 전이가 되지 않습니다.

많은 실무사례를 통한 이해와 반복적인 연습을 위한 통일된 풀이 방법의 제시 및 이의 반복을 통해 원가관리회계의 고득점을 위한 최선의 강의를 이루어 질 것입니다.

3. 세 법

▶ 출제경향

법인세법의 출제경향은 익금과 손금의 기본 이론과 감가상각비, 퇴충, 부당행위, 과표세액계산에서 다양하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익금과 손금, 부당행위계산부인 기본 내용은 자주 출제되는 경향을 보이고, 중요성 측면에서 손익귀속, 대손충당금, 신고납부절차, 기타 준비금은 격년 혹은 3년에 한번 정도 출제되어 중간 정도이며, 합병과 분할, 퇴충은 가장 낮은 정도의 출제 빈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분	분 류	15	16	17	18	19	20	21	합계	비율
법 인 세 법	총칙		1	1	1				3	4%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1	1	2	1	1	1	1	8	12%
	익금 및 손금 종합		2	3	2	2		2	11	16%
	접대비 / 기부금	2		2		2	2	2	10	15%
	지급이자	1					1	1	3	4%
	손익의 귀속시기	1	1		1				3	4%
	자산 부채의 평가	1			1	1	2	1	6	9%
	감가상각비	1	1		1	1	1		5	7%
	퇴충·퇴연충								0	0%
	대손충당금	1				1	1		3	4%
	기타준비금								0	0%
	부당행위계산부인	1		1		1			3	4%
	과표 및 세액계산	1	1	1	2			1	7	10%
	합병 및 분할						1	1	3	4%
	신고납부절차		2		1				4	6%
	기타법인세		1			1			2	3%
합계		10	9	9	9	11	10	68	100%	

구분	분 류	15	16	17	18	19	20	21	합계	비율
소득세법	총칙	1		1	1	2			5	7%
	이자소득/배당소득	1	1	1		1	1	2	7	10%
	사업소득	2	1		1	1	2	2	9	13%
	근로/연금/기타소득	1	3	3	1	2	2	3	15	22%
	소득금액계산 및 세액계산특례	1	1		3		1	2	8	12%
	종합소득공제					1			1	1%
	종합소득세액계산	2		1	2		1		6	9%
	퇴직소득세	1	1				1		3	4%
	양도소득세	1	2	3	2	2	1	1	12	17%
	절차규정/기타		1	2			1		3	4%
	합계		10	10	10	10	9	10	10	69

소득세는 골고루 출제가 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근로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세는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최근에는 연금소득과 퇴직소득세 관련 문제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구분	분 류	15	16	17	18	19	20	21	합계	비율
부가가치세법	총칙	1		1	1	1		1	5	9%
	과세거래	2	2	1	2	2	1	1	11	20%
	영세율과 면세	1	1	1		1	1	1	6	11%
	과세표준/매출세액	1	2	2	1	2	2	2	12	21%
	매입세액	2	2	1			1	1	7	13%
	과세면세 경영사업자			1			1	1	3	5%
	세금계산서/절차규정		1	1	2	1	2	1	8	14%
	간이과세	1			2	1			4	7%
	합계		8	8	8	8	8	8	8	56

부가가치세법도 범위가 좁아 골고루 출제되는 편입니다. 그 중 과세거래와 세금계산서, 과세표준 계산 부분이 가장 높은 출제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과 부가가치세법의 차이는 출제경향에서의 차이보다 문제 풀이의 난이도 수준의 차이가 있습니다. 즉, 부가가치세법에서 계산 문제의 난이도는 다른 세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이 되므로 시험장에서 부가가치세법은 완벽한 풀이가 가능해야 합니다.

구분	분 류	15	16	17	18	19	20	21	합계	비율
국 세 기 본 법	총칙		1				1	1	3	10%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1		1		1			3	10%
	납세의무	2		1	1	1	1	1	7	23%
	납세의무확장제도		1				1		2	7%
	국세우선권과 납세담보				1	1		1	3	10%
	과세		1	1	1				3	10%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1						1	3%
	국세불복절차	1		1	1				3	10%
	납세자의 권리	1	1	1		1	1		5	17%
	합계	5	5	5	4	4	4	3	30	100%

국세기본법은 각 부분에서 골고루 출제되고 있습니다. 분류 주제 중에서는 납세의무와 총칙부분은 가장 출제빈도가 높은 부분입니다.

구 분	15	16	17	18	19	20	21	합계
법인세법	10	10	10	10	11	10	10	71
소득세법	10	10	10	10	9	10	10	69
부가가치세법	8	8	8	8	8	8	8	56
국세기본법	5	5	5	4	4	4	4	31
국세징수법	3	3	3	4	4	4	4	25
국조법	2	2	2	2	2	2	2	14
조세범처벌법	2	2	2	2	2	2	2	14
계	40	40	40	40	40	40	40	280

출제경향으로 판단컨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조법, 조세범처벌법에서 약 30%정도 출제되므로, 이론문제만이라도 적극적으로 준비한다면 과락은 반드시 피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법에서도 50% 정도가 이론문제입니다.

결국 40문제 중에서 25~28문제 내외가 계산형 문제가 아니라 이론형 문제이므로 계산에 자신이 없는 수험생이라도 이론문제를 충실히 준비한다면 당연히 과락은 피할 수 있고 60점이 넘는 목표점수도 가능하므로, 혹시 계산실수가 많은 수험생이라도 세법 시험 고득점 획득이 어려울 것이라는 선입견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수험전략

세법을 공부하기 전 가장 필수적인 부분이 재무회계 학습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법인세법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거래 발생에 따른 다양한 회계 분개 처리방법에 대한 완벽한 숙지가 필요합니다. 회계원리와 증급회계를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한 상태에서 세법을 시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하 세법 시험과목을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는 기본적인 노하우에 대해서 안내하겠습니다.

첫째, 암기하기 보다는 이해하고, 눈으로 보기보다는 손으로 정리하라.

세법은 우리가 체험하는 경제현상을 반영하는 실무 학문입니다. 실제 발생한 여러 조세관련 경제적 사건과 현상이 자연스럽게 반영되어 법조문에 녹아 들어 간 것이고, 급격하게 변화하는 경제 사회적 현실을 지속적으로 잘 반영하기 위해 매년 법규정의 개정이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법조문이 만들어진 계기가 된 사회 경제현상과 그 취지를 잘 이해하면 굳이 암기하려고 노력하지 않더라도 장기간 해당 내용을 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둘째, 예습 보다는 복습, 복습은 반드시 문제풀이로 하면서 정리하라.

추상적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법조문을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당 상황에 맞는 계산형 예제 문제 등을 많이 풀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법규정을 읽어가면서 홀로 이해하려 하지 말고 예제를 풀면서 주어진 상황 안에 내가 그 상황의 실제 해당 인물인 것처럼 가정하고 계산을 하면서 답을 맞추어 가면 자연스럽게 법규정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세법과목이 덜 지루하고 집중력 또한 올라갑니다.

일반적인 공부 방법은 복습하면서 대부분 예제를 맞추기 위해 이론을 집중적으로 읽으면서 이해하려 하거나 외우려고만 합니다. 하지만, 이론을 복습하면서 세법의 난해함을 깨닫고 싫증나고 짜증내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처음에 문제가 잘 풀리지 않더라도 교재에 나와있는 문제의 풀이 전개과정을 숙지한 이후 똑같은 방식으로 풀이해보고, 내가 무엇을 모르고 무엇을 알고 있는지 문제풀이를 통하여 항상 자가 검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여러분도, 저와 같은 세법강사도,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선배 세무사도 누구나 실수를 하고 틀리기 마련입니다. 그러한 과정을 부단이 경험한 후 세법의 실력을 한 단계씩 쌓을 수 있는 것입니다.

▶ 강의주안점

종합반에서는 주요 3가지 세목인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를 집중 공략합니다. 전체 과목에서도 이 세 과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70%이고, 기타 세법의 경우 이론형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어서 시험 직전에 공부를 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먼저 합격한 선배 세무사인 저 또한 시험 직전 기타 세법을 집중적으로 공략하여 세법과목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순서는 부가가치세를 먼저 공부하면서 거래를 이해하고, 법인세와 소득세를 이어서 공부합니다. 재무회계 학습이 충분하게 준비되지 아니하였다면 소득세를 먼저 공부한 후 법인세를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는 계산문제가 출제되지 아니하지만, 이론문제 유형으로 전체의 30% 가까이 출제되므로 이 부분도 추후 객관식반 등에서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첫째, 실무사례를 들어 이해하는 강의

세법을 처음 배우는 과정에서 가장 힘든 점은 경험해 보지 못한 사실을 책을 통해서 이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경험했던 것을 이해하는 것과 경험하지 못한 사실을 이해하는 것은 이해의 깊이가 다릅니다. 따라서 실제 경험하지는 못하였더라도 강사가 경험한 다양한 사례를 강의시간에 전수받으면서 실제 거래를 이해하고, 법규정을 이해하여 최대한 암기를 줄이는 방향으로 접근하려 합니다. 세법강사이자 세무사로서 실제 업무에서 경험한 생생한 사례를 예로 들어 재미있으면서도 쉽게 이해 되는 강의를 진행되도록 합니다.

둘째, 선택과 집중

우리 학원의 특성상 주말에만 집중적으로 강의가 진행되므로, 강의시수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 세법이라는 학문자체도 방대한데다가 조문 하나 하나를 다 풀어서 이해하려 한다면 200시간을 강의하여도 부족할 것입니다. 따라서 제한 강의시수 내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여 시험문제에 자주 출제되고 중요한 부분인 80%만을 집중 공략할 것입니다. 나머지 20%에 해당하는 부분도 출제는 되나 가능성이 매우 낮고, 자주 출제되는 80%부분의 강의 설명시간과 비교해보면 그보다 배 이상의 시간을 소모해야 한다는 비능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차 시험을 대비할 때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100점을 맞아야 합격하는 시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무사 수석시험을 목표로 하는 것도 좋지만, 10년 동안 공부하여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숙지하여 1등으로 합격하는 것과 1년 6개월 동안 공부해서 완벽하게 마스터하지는 않았지만, 1차 2차 모두 컷라인에서 1점 높은 점수로 합격하는 것 중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을 더 원하시는지요?

특히 전업수험생이 아닌 경우 가정과 일, 수험생활은 병행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반드시 필요하며 세법강의도 그러한 기본 원칙에 따라 진행될 것입니다.

4. 재 정 학

재정학은 정부(공공부문)의 경제활동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하는 학문입니다.

재정학은 거의 대부분의 이론이 미시경제학을 바탕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미시경제학적 지식의 학습이 선행되어야만 비로소 재정학이라는 학문에 대한 이해가 가능해집니다.

‘재정학은 어렵다!?’

대다수 수험생들의 재정학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수험과목으로서 재정학이 어려울 수 있는 이유는 학문 그 자체의 어려움 보다는 기존에 접해보지 않은 낯설과 두려움이 훨씬 더 큰 몫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주변에 친한 동료가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분명 낯설고 어색하지만 함께하는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느덧 그 생소한 느낌이 사라지고 지금은 없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재정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학이라는 토대를 두고 있기에 처음에는 다른 과목에 비해 더없이 낯설게 느껴지겠지만 여러분이 조금만 노력한다면 재정학은 여러분의 친한 친구가 되어주고, 나아가서는 여러분의 든든한 합격의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따라서 재정학을 이해하는 첫걸음은 재정학과 친해지는 방법을 찾는 것이고, 재정학과 친해지는 가장 쉬운 방법은 재정학에 필요한 미시경제학적 지식을 철저히 학습하여 재정학에 대한 흥미를 돋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에는 여러분이 작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재정학은 큰 보답을 할 것입니다.

▶ 출제경향

지난 10년 동안 계산 문제는 연 평균 6문제가 출제되어 전체 40문제 가운데 15%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많을 때는 8문제, 적을 때는 5문제로 그 편차는 크지 않았으며, 전체 문제 수를 감안한다면 계산 문제는 말 문제에 비해서 비중이 현저히 낮다고 할 수 있다.

계산 문제로 출제가 된 파트를 살펴보면, 2편 외부성·공공재·공공선택이론과 3편 공공지출이론에서 전체 문제의 50%가, 4편 조세론의 기초 및 전가와 귀착과 5편 조세의 초과부담 및 최적과세론에서 전체 문제의 29%가 출제되었다. 특히 2편 외부성·공공재·공공선택이론은 개별 파트이면서도 전체 문제의 35%를 차지하며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출제빈도가 가장 높은 2편 외부성·공공재·공공선택이론에서는 외부성과 관련한 피구세 계산 문제, 공공재의 적정 공급량 계산 문제가 거의 매년 출제되었고, 3편 공공지출이론에서는 비용-편익분석의 평가기준인 현재가치법, 내부수익률법 등에 관한 계산 문제가 출제되었다. 그리고 전체 문제의 16%를 차지한 4편 조세론의 기초 및 전가와 귀착에서는 완전경쟁시장(혹은 독점시장)에서의 조세의 전가와 귀착 계산 문제가 주를 이루었다.

추가적으로, 공유지의 비극 관련 계산 문제, 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 관련 계산 문제, 코즈 정리 계산 문제, 초과부담 계산 문제, 소득분배 상태의 측정방법 중 엡킨슨지수와 십분위분배율 계산 문제, 부의 소득세(혹은 선형누진세) 계산 문제 등이 출제되었다.

구 분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합계	백분율
1편 재정학의 개요	4	3	3	2	3	1	2	2	2	3	25	6.3%
2편 외부성, 공공재, 공공선택이론	6	8	9	9	7	9	8	11	6	7	80	20.0%
3편 공공지출이론	2	2	3	3	2	4	4	2	2	2	26	6.5%
계	12	13	15	14	12	14	14	15	10	12	131	32.8%
4편 조세론의 기초, 전기와 귀착	9	9	6	5	6	7	5	6	5	7	65	16.3%
5편 조세와 효율성, 최적과세론	5	5	4	4	5	4	6	5	8	3	49	12.2%
6편 개별조세이론, 조세의 경제적효과	5	6	5	9	7	8	9	3	6	6	64	16.0%
계	19	20	15	18	18	19	20	14	19	16	178	44.5%
7편 재정학의 기타주제	9	7	10	8	10	7	6	11	11	12	91	22.7%
계	6	7	10	8	10	7	6	11	11	12	91	22.7%
합계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0	100%

▶ 단원별 출제경향 분석

1편 재정학의 개요

사회후생극대화의 조건인 효율성을 파레토 효율성이라는 분석도구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공정성은 사회후생함수를 통해 분석합니다. 그리고 정부개입의 근거가 되는 시장실패의 요인들을 살펴봅니다. 파레토 효율성과 사회후생함수는 출제빈도가 높기 때문에 꼼꼼히 학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2편 외부성, 공공재, 공공선택이론

완전경쟁임에도 시장실패를 야기하는 외부성과 공공재이론은 매년 6~7문제가 출제될 정도로 출제빈도가 높습니다. 특히 계산 문제가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미리 미리 계산 문제를 해결하는 연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선호를 집약하여 사회선호로 나타내주는 투표제도의 장단점에 대해서도 잘 파악해야 합니다.

3편 공공지출이론

정부의 예산제도와 비용-편익분석에서는 통상 4문제 정도가 출제됩니다. 그리고 가끔 내부수익률과 관련된 계산 문제가 출제됩니다. 걱정 할인율과 관련된 내용도 숙지해야 합니다.

4편 조세론의 기초 및 전가와 귀착

조세의 기초이론에서는 조세에 대한 일반론이 가장 많이 출제되고, 그 당시 이슈가 되는 문제들이 가끔 출제됩니다. 따라서 암기식 학습보다는 전체적인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학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밀의 균등희생원칙과 조세의 전가와 귀착은 조세가 부과될 때의 공평성과 관련된 부분으로 거의 매년 출제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5편 조세의 초과부담 및 최적과세론

조세의 초과부담은 조세부과시 효율성과 관련된 파트로 초과부담의 정의 및 계산문제가 빈번하게 출제 됩니다. 최적과세론은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효율성과 공평성을 만족하는 조세체계를 설계하는 파트입니다. 이 부분도 매년 5문항 정도가 출제됩니다.

6편 개별조세이론 및 조세의 경제적 효과

개별조세이론에서는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가치세가 출제빈도가 가장 높는데, 이를 재정학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학습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세의 경제적 효과 파트에서는 조세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 저축에 미치는 효과, 위험부담행위에 미치는 효과, 그리고 기업의 투자에 미치는 효과가 자주 출제됩니다.

7편 재정학의 기타주제

재정학의 기타주제는 크게 소득분배, 공공요금이론, 공채론, 지방재정으로 나누어지는데, 4개의 주제 모두에서 매년 1문제 이상씩은 출제됩니다. 그 중에서도 소득분배 파트의 출제빈도가 가장 높고 분량도 가장 많습니다. 재정학의 기타주제는 다른 파트에 비해 문제의 난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기본이론을 충실히 학습한다면 별 어려움 없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수험전략

1. 재정학을 위한 미시경제학을 먼저 학습하자

재정학은 경제학과의 3학년 과목으로 미시경제학이 선이수된 학생에 한해서만 수강하도록 할 정도로 미시경제학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재정학은 이 과목이 미시경제학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2. 기본개념들을 정확히 파악하자!!

재정학에 있어 기본개념에 대한 숙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재정학의 바탕이 되는 경제학은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학문이므로 재정학이론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정확히 파악해야만 난이도 높은 응용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되고 이는 곧 고득점으로 연결됩니다.

3. 그래프를 최대한 활용하자!!

재정학에서 대부분의 이론은 그래프에 의한 설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프를 통한 내용 이해가 주를 이루는데, 그래프는 복잡한 설명을 간단명료하게 대신하므로 내용 전달을 용이하게 하고 학습자의 빠른 이해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러한 그래프 분석에 애를 먹는 수험생이 많다는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익숙하지 않은 데서 오는 어려움일 뿐입니다. 그래프를 활용하여 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복습한다면 차후에는 그래프가 재정학을 이해하는데 매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특히 주요 그래프는 직접 손으로 그리고 이를 반복해가며 이미지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4.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자!!

기출문제는 최근 재정학의 출제경향을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또한 기출문제풀이는 여러분이 습득한 지식이 정확한 것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기출문제를 반복적으로 풀어봄으로써 출제경향을 파악하고 학습방향 역시 설정해야 합니다.

5. 계산문제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자!!

최근 출제되는 계산문제의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기존에 출제된 문제의 틀을 벗어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기출된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풀어봄으로써 각 문제의 유형과 그에 쓰이는 공식을 잘 파악한다면 충분히 고득점을 할 수 있습니다. 간혹 이러한 계산문제를 푸는데 수학적 지식이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미분에 대한 적정 수준의 이해가 뒷받침된다면 충분하기 때문에 전혀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 강의주안점

앞에서 언급했듯이 재정학은 암기가 아닌 이해하는 과목입니다. 또한 미시경제학적 배경지식이 필요한 과목입니다. 재정학 고득점을 위한 본 강의의 주안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재정학에 필요한 미시경제학으로 선행학습을 합니다.

둘째, 암기가 아닌 이해위주의 쉬운 설명과 강의로 진행됩니다.

끝으로 경제학은 희소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선택의 문제를 다루는 학문입니다. 따라서 경제주체는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데 이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수많은 선택의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이 수험생활이라는 선택을 하였다면 그 선택의 기회비용을 늘 염두에 두어 수험생활이 매몰비용이 되지 않고 당연한 합격으로 그 매몰비용을 회수함으로써 여러분의 땀과 노력을 보상받기를 바랍니다.

5. 상 법

▶ 수험전략

1. 선택과목의 선택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만나 강의를 진행하는 필자입장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의 압도적인 1순위가 있다면 아마도 어떤 선택과목을 선택하여야 하는지이다. 물론, 필자에게도 가장 까다로운 질문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세무사시험에서 과거로부터 가장 많이 선택되어 오던 과목이 상법이다 보니, 최근 분량이 적다는 이점에서 행정소송법을 선택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상법을 선택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당연한 물음이 생길 것이다.

여기서는 상법에 관하여만 말씀드린다.

상법 엄밀히는 세무사시험에서는 그 중에서 제2편 회사법 부분만 출제 대상이다. 하지만 회사법 조문수는 상당히 많은 편이어서 처음에 공부하기가 조금 버거울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상법이 그나마 안정된 지점이 있다면 종래로부터 많은 문제가 기출되어 있어서 기출지점이 명확하다는 점에 있다. 즉, 기출문제를 숙지하다보면 실제 득점에 있어서 어렵지 않게 목표점수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이고, 2021년 출제에서 보다시피 오히려 행정소송법보다 평균득점이 높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출제자도 가능한 어렵지 않게 출제하려는 것이 최근의 트렌드가 아닐까 생각이 든다.

2. 각 제도의 개괄파악 및 민법의 기본파악

회사법은 각각의 회사제도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회사법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기에 앞서 각제도의 개괄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회사제도의 개괄 파악과 병행하여 약간의 민법 및 민사소송법 지식을 프리상법강의 등을 통하여 파악하여 두는 것은 앞으로의 세부적인 회사법 논의를 위하여 필요한 부분이다.

3. 기출지점의 파악

회사법 각 제도의 개괄파악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본격적인 공부에 앞서 기출문제를 먼저 들여다보기를 권한다. 기출문제의 개괄파악을 먼저 하지 않는다면 전혀 출제되지 않는 부분 또는 출제빈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부분에 필요이상의 노력과

시간을 낭비하는 비효율성이 초래되기 때문이다.

4. 세부적 강독 및 강의 진행

위와 같은 부분의 파악이 이루어진 후 회사법의 세부적인 논점을 파악하는 소위 집중강독 및 집중강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① 집중회독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먼저 회사법 조문을 파악하는 것에 집중하여야 한다. 물론, 시중의 교과서는 대개 회사법조문이 원안 그대로 삽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상당하지만, 공부를 하는 본인들은 회사법조문을 원안 그대로 살펴보고 확인하는 과정을 병행하여 간다면 상당히 학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② 다만,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적어도 교과서 내에 법조 표시가 되어 있는 문장 만큼은 분석적으로 문장을 파악하여 구체적인 암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습하여야 한다.

③ 물론, 집중회독을 하면서도 그간의 기출문제를 수시로 들여다보며 확인한다면 훨씬 더 효율적인 공부가 될 수 있다.

5. 집중회독시의 문제풀이

대개의 수험생들이 문제풀이를 기본서 작업이 끝난 후에 집중적으로 하는 형태의 학습계획을 삼고 있다.

그러나, 문제풀이는 기본서 집중회독시에 어느 한 테마의 학습이 끝나면 바로바로 푸는 형태여야 한다. 따라서 각자 적어도 기출문제 만큼은 테마 학습 이후 바로 푸는 연습이 필요하다.

이는 학원강의를 수강하는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강사의 강의를 듣고 간단한 복습을 거친 후 바로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학습 방법이 수험가의 정석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 강의 주안점

1. 먼저, 각 제도의 개괄적 설명을 통해 제도의 소개를 한 후 집중적인 수험학습에 들어간다.
2. 집중적 수험학습에서는 세부적인 해결을 하며, 이 과정에서 적어도 역대 기출지점에 대한 교과서 정리를 병행한다.

3. 필요하다면 역대 기출문제 중 주요지점은 바로바로 문제를 풀어본다.
4. 강의의 주안점은 철저한 수험용 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에 있다. 불필요한 부분보다는 시험에 바로 대비될 수 있도록 세련된 강의가 될 수 있도록 한다.

▶ 출제경향

구분 \ 연도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회사의 의의		1								1		1		
법인격 남용							1							
1인회사	1			1			1							
회사의 능력							1							
회사의 종류									1					
외국회사								1						
각 회사 사원의 책임														
회사설립의 절차											2			
설립의 하자								1				1	1	
정관의 변경		1			1	1								
회사의 합병		1			1		1	1	1	1	1		1	2
회사의 분할				1		1	1					1		1
조직변경		1		1			1		1	1	1	1	1	
회사의 해산		1		1	1		2	2		2	1	1	2	
회사의 청산	1	1		1			1						1	1
회사의 계속														
휴면회사														
자본의 원칙	1						1		1			1		
발기인				1										
설립중회사							1							
정관의 작성	1								1	1	1	1	1	1
설립방법 및 반대설립사형	1	1			1	2	2	2	1	1	2	1	2	3
타인명의 주식인수											1			
주금액 납입				1					1			1	1	
설립등기								1					1	
설립책임		1		1	1		1			1		1		1

구분	연도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불성립책임								1							
주식과 주주명등		2				2	1	1	1	1	1	1	1		
주주권(단독·소수 포함)		2				2		2				2			1
주식의 종류									1						
주식 종류	이익배당 등											1			
	의결권						1	1				1		1	1
	상환주						1	1			1	1			
	전환주		1				1	1			1	1		1	
주권과 불소지	2			1		1		1			1	1	2	1	
명의개서대리인				1											
명의개서							1		1	1	1	1			
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1					1	2		1					
주식양도	1	1		1	2		1	3	3	1	2	1	3	2	
주식담보	1							1				1			
주식병합·분할과소각												1	1	1	
자본금감소	1						1		1		1	1	1	1	
주식매수선택권				1	1	1		1	1	1		1		1	
지배주주의 매도청구					1	1		1				1		1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1		1	1		1	1	2	1	1	1		1	
주총소집	1			1	1		1	1				1	1	1	
주총의 권한														1	
주주제안권														1	
의결권 행사	2	1	1	1	1	2					1			1	
주총결의 사항					1				2			1	2		1
영업양도										1	2	1		1	
반대주주의 주식매수 청구권														1	
주총결의 하자		1					1	1	1	1	2	1		1	
종류주총				1									1	1	
이사		1		1		1	1	2	1			2	1	1	2
이사의 의무											2				1
이사의 자기거래				1											
이사의 책임				1	1		1		1	1					
업무집행 지시자							1								

구분 \ 연도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이사직무 대행자										1				1
이사회				1	1				1	3	1	1	1	1
이사회내 위원회		1				1				1		1	1	1
대표이사		1		1	1		2	1	1	1	1		1	
집행임원					1	1	1		1			1		
감사							1	1	1				1	1
감사위원회	1		1	1	1								1	1
검사인														
준법지원인										1		1		
유지청구권				1										
주주대표소송					1			1	1		2	1		
다중대표소송														1
신주발행					1	1	1	1	1	1	2	1	2	1
신주인수권							1	1						1
위법한 신주발행	1						1							
할인발행														1
회 계					1	1	1			1			1	
준비금 및 자본금전입				1			1	1	1		1			
이익배당	1					1	1		1	1	1	1	1	1
주식배당							1		1	1	1			
위법배당														
이익공여금지						1								
사채의 발행	1			1			1		1	1	1	1		1
사채관리회사							1							1
사채권자집회							1		1					
전환사채				1				1				1	1	
신주인수권부사채										1		1		
상장특례							1							
소규모주식회사									2			1		
유한회사					1		1	1	2	1	1	1	1	1
합명회사		1		1	1		1	1	1	2	1	1	2	1
합자회사		1		1	1		1	1	2		1	1	1	1
유한책임회사					1	1	1	1	2	2	1	1	1	1

6. 민법총칙

▶ 출제경향

세무사 민법총칙은 출제범위가 매우 좁은 편이기 때문에 매년 어느 하나의 단원에만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출제되고 있다.

▶ 수험전략

1. 민법총칙의 법학에서의 위치

• 모든 법학의 꽃은 민법에 있다 이야기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꽃을 꼽으라면 역시 민법총칙이다. 민법총칙은 결국 모든 법학의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 민법은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 총론, 채권법 각론, 친족법 및 상속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 채권법은 주로 사인 사이의 약속 즉 계약에 의한 의무의 이행에 관한 법이며, 물권법은 그에 의하여 물건에 관한 각종의 권리를 설정하는 것에 관한 법이다. 친족법은 혼인, 입양 등과 같은 가족질서를 형성하는 방법에 관한 법이며, 상속법은 말 그대로 상속에 관한 제문제를 다루는 법이다.

• 민법총칙은 이러한 채권법, 물권법, 친족법, 상속법의 각 행위들에 관한 공통적 속성을 다루는 법이라 할 수 있다.

2. 민법총칙은 어려운가?

※ 민법총칙에 관한 세무사 수험가의 잘못된 소문

- 세무사 수험가에서는 민법총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민법의 모든 분과, 채권법, 물권법, 친족·상속법을 다 알아야 한다는 말도 안되는 소문이 퍼져 있는 듯하다. 하지만, 이것은 민법총칙을 잘 모르는 사람들의 낭설일 뿐이다.
- 물론, 민법을 모두 아는 사람이라면 민법총칙은 아예 따로 공부할 필요마저 없을 수 있으나, 세무사 수험가로서의 민법총칙은 그저 법조문과 핵심 판례 정도만 출제될 수밖에 없다.
- 출제자는 민법총칙을 출제하라는 지시를 받고는 다른 민법의 분과를 잘 몰라도 공부할 수 있는 지점을 중점적으로 출제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며, 실제 기출문제도 그렇게 출제되고 있다.

• 민법총칙은 점수취득면에 있어서 상당히 안정된 점수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즉, 안정된 80점대의 유지가 가능한 과목이다. 물론, 90점 이상의 고득점도 충분히 가능하다. 비교하자면 회사법보다 점수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이는 행정쟁송법과의 비교에서도 또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안정권에 오르기까지 약간의 고통은 따른다.

• 회사법은 거의 500여 조문(실제 문장으로는 800여문 이상)이상으로 구성된 반면 민법총칙은 184조로 구성되어 있다. 즉, 법조문의 양이 사실 회사법에 1/4에 상응한다. 결국 조문만 출제된다고 하여도 회사법 준비가 민법총칙에 비하여 시간과 노력이 적어도 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

• 수험효율면에서 볼 때, 예컨대, 행정쟁송법은 사실 소송법 및 절차법 영역과 실체법으로서의 행정법 영역을 아울러야 하기 때문에 수험 막판에 갈수록 별도의 정리 및 암기 시간의 양은 늘어난다. 이점은 회사법도 마찬가지이다. 아니 회사법은 더욱 심하다. 회사법은 법조문의 양도 그러하거니와 2014년 시험에서 보았듯이 출제자가 약간의 욕심을 부린다면 점수가 하락하는 폭이 상당히 크다. 시험 직전일수록 더 공부해야 할 양이 많아지며, 수험불안도 심해지는 속성을 가지는 것이 회사법이다.

• 반면에 민법총칙은 처음 공부할 때에는 약간의 생소한 용어로 인하여 어려움을 느낄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나고 수험이 임박하여 올수록 공부할 양이 거의 없을 정도로 축약이 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 처음에 약간 어려우나 막판에는 시간을 많이 들일 필요가 없이 여유롭고 점수도 거의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과목이 민법총칙이다.

3. 민법총칙의 공부방법

• 민법총칙을 학원에서 기본형태로 두 번 정도의 수강이 이루어지면 민법총칙은 그 자체로 수험준비는 끝나게 된다. 별도의 암기는 크게 필요하지 않다.

• 항상 강조하거니와 그 이외에는 객관식 풀이를 통하여 실제의 문제를 풀어 보면 된다. 그 과정에서 사실상 수험준비는 모두 끝난 셈이 된다. 여러분들은 세무사시험의 기타 주요과목들만을 공부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 주요 기출거점

구분 \ 연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민법의 의의											
민법의 법원	1	1	1	1	1	1		1	1	3	
민법의 기본원리			1								
민법의 적용범위							1				
법률관계와 권리, 의무					1	1	1				
권리의 종류			1	1				1			
권리의 충돌과 경합							1				
신의성실의 원칙	1	1	1		1			1	3	1	1
자연인의 권리능력	2	1	1	1	1	1	1	2	2	1	
의사능력	1			1							
행위능력과 미성년자	2	1	1	1	1	2	1	1	2	1	1
기타 제한능력자	2			1	1	2	1	1	2	1	1
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 보호		1		1						1	
주소	1		1		1			1			
부재			1	2	1	1	1	1	1		1
실종	1	1			1	1	1	1		1	1
법인의 설립①		1	2		1	1		1	2	1	1
법인의 설립② - 재단법인			1	1		3	1	2		1	2
법인의 권리능력			1		1		1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1	1		1	1		1		1	1
이사		2			2	1	1	1	1	1	2
감사										1	
사원총회						1	1	1		1	1
법인의 주소											
법인의 해산, 청산	1	1		1			3	1	2	2	2

구분 \ 연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법인의 감독											
권리능력없는 사단과 재단	1	1	1	2	2	1	1	1	1	1	
물건	2	1	1	1		1	1	1	1	1	2
부동산과 동산		1					1				
주물과 종물		1	1	1	1	1			1		
원물과 과실					1	1				1	
법률행위		2				2	2				
법률행위의 해석	1								1		1
강행규정		1					1		1	1	
반사회행위	2	1	3	1	1	2	1	1	2	1	1
불공정법률행위	1	1	1	1	1	1		1	1	1	1
비진의 의사표시	1	1		1	2		1	1	1	1	1
통정허위표시	1			1	1	1	2	1	1	1	1
착오	1	1	2	1	1	1	1	1	1	1	1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	1				1	1	2	1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	1				1	1	1		1	1
대리	2	2	1	2	2	4	3	2	2	3	3
복대리	1	1	1	1	1	1	1	1		2	1
무권대리	1	1	2	1	1		1	1	1		2
표현대리	2	1	1	3	2	1	1	1	1	1	2
의사표시의 무효				1	2	1	1	1		1	1
유동적 무효			1	1					1		
의사표시의 취소	1	1	1	2	1		3	2	2	2	1
조건과 기한	1	1	2	1	2	2	2	2	3	1	2
기간	1	1	1	1	1	1	1	1	1		1
소멸시효	2	2	2	2	2	2	3	4			2
시효의 중단	1	1		1		1	1	1	1	1	1
시효의 정지			1					1			
제척기간	1		1		1				1	1	1

7. 행정소송법

▶ 행정소송법 소개 및 경향

행정소송법은 행정청과 국민과의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대비하기 위한 소송법이다. 행정소송법 자체는 총 46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나머지 소송 영역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기본적으로 준용하고 있다.

크게 양은 많지 않아 보이지만, 사실 행정법의 압축이라고 할 수 있어서 행정법 자체에 대한 이해와 소송에 대한 이해까지도 요하므로 생각만큼 쉬운 범영역이라 할 수는 없다.

▶ 수험전략

세무사 시험에서는 행정소송법이 회사법, 민법총칙과 더불어 선택과목으로 분류되어 있다. 따라서 전략적으로 접근할 때, 행정소송법 선택이 유리한 선택일 수 있는가는 수험생분들의 1차적인 관심사가 아닐까 생각한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행정소송법 선택은 적어도 1차 시험을 위하여 상당히 유리한 측면을 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다만, 최근 행정소송법 문제에 최근판례까지도 기출되고 있어 난이도가 그해 그해 변동이 심하다는 점은 덧붙여둔다.

1. 가장 기본적으로 대비하여야 할 법조문의 수가 다른 과목에 비하여 적다.

- 행정소송법 시험은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법조문에서 출발되므로, 기본특점 확보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 수험에서 기본특점을 갖추고 시작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2. 행정법 이론영역 출제는 실제 그리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본래 행정법 총론에 해당하는 이론 영역이 실제 행정소송법에 국한하고 있는 세무사 시험에서는 출제가 되지 않는다. 이 점이 가장 안심이 되는 부분이다. 만일 행정법 총론에 나오는 구체적인 이론이 등장한다면 행정법은 사실 난공불락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인데, 다행히 행정소송법에 국한되어 출제되고 있으므로 괜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3. 역대 기출문제 자체는 그리 어렵지 않다.

• 행정소송법이 예년에 비하여 다소 난이도가 증가는 되었어도 그래도 다른 선택과목에 비하여 아직은 쉬운 출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특점에 있어서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수준이다. 그 점이 최근 행정소송법을 선택하는 수험생이 증가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 강의의 주안점

강사는 행정법 강의 뿐만 아니라, 나아가 민사소송법 강의로 많은 수험생들에게 이름이 알려져 있다. 오히려 민사소송법은 최고의 난이도를 자랑하는 법으로써, 행정소송법은 그에 비하면 정말 상당히 쉬운 강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소송법의 가장 기본적인 준용규정이 민사소송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실 소송법의 가장 기본적인 틀을 소개하는 것으로는 여러분들이 기대를 하셔도 될 듯 하다.

수업 시간을 통하여 역대 기출분석이 동시에 이루어지며, 수험에 불필요한 지식은 전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철저히 득점 위주의 수업이 될 것이므로, 선택하신 수험생분들은 철저히 강사와의 학습을 통하여서만으로도 1차 시험 통과를 위한 선택과목 전략은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

▶ 주요 기출거점

구분 \ 연도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행정소송의 의의+종류	1	1	1	1			1	1		1	1		
행정소송의 유형					2	1	1		2				
행정소송의 한계	2	1	1	1		1	1				1	2	1
행정소송의 준용규정				1		1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서의 처분 등의 효력		1											1
취소소송의 소송물													
취소소송의 재판관할+이송	3	2	3	2	1	2	3	1	2	2		2	1

구분 \ 연도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당사자 일반													1
원고적격	1	1	1	3	3	2	1	2	1	1	3	2	3
협의를소의	1	1	1	1	1	2	1	1	2	1	2	2	1
피고적격	1	1	2	1	2	1	1	1	1	1	3	1	1
피고경정		1				1				1	2		
공동소송과 소송참가	1	1	2	1	3	1	1	1	1	1	1	1	1
처분	3	3	4	3		3	3	5	4	8	5	2	1
재결	1		12		2	1	1		1	1	1	1	2
소송요건 일반		1	1				1	1	1	1		2	
제소기간	1		1	1	1	1	1	1	1	1		2	3
행정심판	1	3	1	1	2	1	3	1	1	1	1	2	1
소의 변경	1	2	1	2	5	1	2	2	1	1	2	2	2
가구제	3	3	3	5	2	2	1	2		1	2	2	1
심리의 범위	2	2	2	1	1	3	2	1	1		1	1	
소송물													1
심리의 일반원칙									1	1	3		
직권심리주의-									2				
행정심판기록제출명령									2	1	1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2	1	1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2	2	2	2	1	1	1	2	2	1	1	1	
처분의 위법성 판단시점													1
취소소송의 판결-													
일반+사정판결	1	2	2	1	3	3	3	3	3	3		1	1
취소판결의 효력-①													
자박력													
취소판결의 효력-②													
확정력	2	2	2		1	1	1	1	1	1			
기판력													1
취소판결의 효력-③													
기속력			1	3	1	1		2	1		1	1	1
취소판결의 효력-④													
간접강제	1	1	1	1	1	1			1	1		1	1

구분 \ 연도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취소소송의 불복⑤ 형평서·집행력	1	1	1	1	1	1			1	1			3
취소소송의 불복⑥ 재처분의무													
취소소송의무			1										
취소소송의 불복 일반+재심		2	1	1		1					1		
명령+규칙의 위헌+위법판결공고		1					1						1
소송비용											1		
무효 등 확인의 소	1	2	4	2	2	2	2	2	1		2	3	1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	2	1	1	1	1	1	2	1	3		3	4
당사자소송	3	3	3	3	3	1	4	2	2	3	3	3	4
객관적 소송	2	1	1	1	1	1	2	1	1	2	2	1	2

2 세무사 합격전략(2차 시험)

세무사 2차 과목 공부시에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다음 3가지를 들고 싶다.

1. 너무 세세한 것에는 비중을 낮추어야 머리가 가벼워진다.

2. 세법학은 모의고사 등을 미리미리 시작해서 자기 자신의 문제점을 빨리 점검하고 수정해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신속히 찾아내야 한다.

3. 절대 동차기회를 놓치지 마라.

세무사 2차 시험과목

1. 회계학 1부(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2. 회계학 2부
3. 세법학 1부
4. 세법학 2부

첫째, 2차시험은 1차시험과는 달리 상대평가이고, 동차를 노릴 경우 시험준비 기간이 짧기 때문에 모든 과목의 모든 분야를 완벽하게 하여 머릿속에 가지고 갈 수 있는 수험생은 극히 소수일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게다가, 세세한 부분은 시험장에서 활용할 가능성이 적을 뿐 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마지막 2주정도 동안에 머릿속에 모두 넣고 가기에는 너무 무거워 오히려 이 때문에 필수적이고 비중이 높은 부분까지 망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2차준비 기간동안 이 부분에 대한 무리한 욕심은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 회계학1,2부는 계산이므로 반복학습과 숙달로 해결이 가능하지만, 세법학은 서술이므로 자신에 맞는 답안작성 요령을 찾는 게 핵심인데 여기에는 모의고사 만큼 좋은 방법이 없는 것 같다. 게다가, 요령을 찾는 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기출문제나 기존의 학원 모의고사문제 등과 이에 대한 여러 가지 형태의 모범답안 등을 구해서 빨리 자기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내고 모의고사를 통하여 자신의 문제점을 찾아서 교정해 나가지 않으면 실제 시험 전까지 합격에 대한 기대감 한번 품어보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예생이 아니라면 짧은 2차 준비기간이 부담스러워 사실상 마음속으로 이미 다음해를 목표로 하여 심도없이 2차준비를 하는 수험생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유예와 동차는 입장일단이라고 생각된다. 동차생은 1차시험 본지가 얼마 안되어서 실전감이 많이 살아있기 때문에 깊이 측면에서는 유예생보다는 부족할 수는 있겠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2차 시험은 어차피 상대적인 게임이고 모든 부분을 모두 커버하는 수험생은 극히 일부이고, 사실상 동차생과 유예생중 누가 우월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최대한 계획을 세워 승부를 내야한다.

- 본원 황장원세무사 합격수기 중

1. 회계학 1부 - 재무회계

▶ 출제경향

세무사 2차 시험의 재무회계 과목은 회계학 1부 100점 중에 60점 배점으로 출제됩니다. 최근 8년간의 자료를 기준으로 분석해보면 자산 및 부채, 자본회계에서 출제되는 점수가 전체의 55%정도이며 나머지는 기타 특수회계부분에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시험이 출제되는 범위만으로 본다면 2차 시험이 1차 시험보다 출제되는 영역은 약간 좁은 편이며 재고자산, 유형자산, 금융자산, 금융부채 등의 부분은 자주 출제되고 있으며 나머지 부분들은 각 영역별로 골고루 출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IFRS가 도입된 2010년 직후보다 최근에는 기타 특수회계부분의 출제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의 출제경향은 중급회계 하권의 부분에서 매년 빠짐없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현금흐름표, 리스회계, 수익인식 부분 등이 특수회계에서는 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구 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건설계약			10점				
재고자산			23점				
유형자산						15점	30점
차입원가 자본화							
무형자산	30점						
금융부채(사채)		30점		4점		15점	
총당부채							
자본				10점			
금융자산	30점			19점			
복합금융상품				8점			
주식기준보상							18점
종업원급여							12점
리스회계					30점	15점	
수익인식				7점			
관계기업투자						15점	
환율변동효과							
오류수정			7점				
주당이익				12점			
법인세회계		30점					
현금흐름표			20점		30점		

▶ 수험전략

2차 재무회계 시험은 다른 과목보다 고득점을 해야하는 부분입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과목보다 1차 시험보다 난이도가 많이 높지 않고 출제되는 범위는 오히려 좁아서 공부를 체계적으로 1차부터 공부를 해 왔다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과목입니다.

첫째, 문제풀이의 “정확성”입니다.

1차 시험과는 달리 2차 시험은 문제풀이의 신속성보다는 “정확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차 시험 때보다 시간적 여유는 더 있기 때문에 빨리 풀지는 않지만 완벽하게 정답을 맞춰야 하므로 정확하게 풀어내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부분점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무조건 정답을 올바르게 맞춰서 공부해야 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둘째, 매일매일 꾸준히 문제를 풀어내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재무회계 과목은 논리적인 과목이어서 이 과목에서 요구하는 있는 논리대로 접근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하루라도 거르지 마시고 하루에 두 세문제라도 직접 풀어보셔야 합니다. 이 과목은 휘발성이 높은 과목이므로 단기간에 집중한다고 해도 재무회계 실력은 갑자기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꾸준히 풀어가면서 문제가 요구하는 스타일에 적응하고 일정한 단계에 오르면 그 때부터 점수는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주관식 문제풀이라고 해서 기본내용을 등한시하지 마시고 기본 내용과 기준서상의 내용을 문제 풀기 전에 반드시 읽고 학습하셔야 합니다.

2차 시험이 문제풀이 위주로 하다보면 문제만 푸는데 열중하는데 문제를 잘 풀 어낼 수 있는 논리적인 바탕은 기본 내용의 이행와 기업회계기준서의 숙지입니다. 해당 내용의 문제를 풀어보기 전에 반드시 기본내용과 평소 중요하다고 표시해 놓은 부분을 다시 한번 공부하고 관련된 문제풀이를 진행하셔야 하며 문제풀이과정에서 틀리는 부분은 또다시 해당 내용에 표시하고 본인이 어떠한 부분을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모르고 있는지를 반드시 체크하고 공부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넷째, 마지막으로 문제를 풀면서 절대 답안을 처음부터 먼저 보지 않는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기본이론 수업중에도 저는 기출문제 등을 풀어볼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은 분들이 처음에 문제가 안 풀리면 조금 더 생각하기 보다 그냥 답을 먼저 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관식 시험은 절대 눈으로 답을 먼저 보면 실력이 향상되지 않습니다. 문제를 못 풀더라도 이리저리 최소한 몇 분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나중에 답을 확인하면서 내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 또는 계산과정에서 어느 부분이 자주 틀리는지 확인하시는 공부습관을 평소부터 가지셔야 합니다.

▶ 강의주안점

첫째,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재무회계의 숲을 보는 시각을 갖출 수 있도록 이 해위주의 강의를 진행합니다.

재무회계 2차 시험은 주관식 문제의 특성상 문제가 객관식보다 훨씬 긴 문제가 출제됩니다. 처음 본 문제가 어떤 답안을 요구하고 있는지 문제를 풀기 전에 문제 전체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를 합니다. 처음부터 너무 지엽적으로만 접근한다면 전체 문제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어떠한 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를 놓칠 수가 있으므로 본 강의는 문제를 크게 볼 수 있는 시각을 갖출 수 있는 재무회계 개념에 대한 내용을 위주로 강의를 진행합니다.

둘째, 같은 문제를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방법을 전달합니다.

재무회계의 문제풀이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수험생들이 제일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 낼 수 있는 방법을 수업시간을 통해서 전수합니다. 10년 이상의 수험강의 경험을 살려서 수험생들의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가야 할 문제 풀이 방법들을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전해 드립니다.

셋째, 수업시간에는 되도록 많은 문제를 풀어보면서 본문의 어떤 내용과 연관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설명은 단순한 계산만으로 끝나지 않고 해당 문제가 본문의 어떤 내용을 문제화 시켰고 왜 자주 출제되고 있으며 중요한지에 대해서 문제와 내용을 비교하면서 항상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재무회계 각 부분을 연관하여 학습하면 현재 공부하고 있는 부분이 앞에서 배운 어떤 내용과 관련된 것인지 항상 상호 비교 및 검토함으로써 한 번 더 복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재무회계는 한 두 번 본다고 해서 실력이 급등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일정한 시간을 투입해서 단계에 오를 수 있으므로 여러분들도 항상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앞과 뒤의 내용이 어떻게 연결되어서 필요한 재무회계 정보를 제공하고 재무제표에 표시할 수 있을 지를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2. 회계학 1부 - 원가관리회계

원가관리회계는 회계학 1부 100점 중에서 40점을 차지하는 과목으로써 보통 20점씩 2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1차 시험에서와 마찬가지로 2차 시험에서도 원가관리회계는 배점 자체는 낮지만 문제에 제시된 자료를 정리해서 출제 의도만 잘 파악하면 고득점이 충분히 가능한 과목이기 때문에 40점 중에서 30점 이상을 목표로 하여야 합니다.

▶ 출제경향

내 용	출제연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원가관리회계 일반 및 원가흐름										
개별원가계산								○		
정상원가계산							△	△		
활동기준원가계산				O(△)						
종합원가계산				△	O(△)				O(△)	
결합원가계산		O(△)							O(△)	
변동원가계산			○	O(△)		△	○			
원가추정										
CVP분석		△	○		O(△)					
관련원가분석		O(△),△		△	△	○		○	○	
자본예산										
종합예산			△	△		O(△)				
불확실성하의 의사결정										
표준원가계산	○									
책임회계와 성과평가		△				△				
대체가격결정	○						○			
기타이론(신이론)	△			(△)	△		△			

(△ : 문제의 일부분으로 나온 경우 (2014년의 경우 한 문제에 여러 가지 주제를 물어보고 있음))

▶ 수험전략

최근 2차 시험 문제들의 특징 중의 하나는 한 문제에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한 문제에서 여러 가지 주제를 물어보는 종합문제 형식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CVP분석을 물어보면서 동시에 특별주문을 수락할 지 여부

를 물어본다든지, 대체거래를 물어보면서 경제적 부가가치를 물어보는 등 연관된 주제를 같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근 시험은 20점짜리 1문제에서 한 가지 주제만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각 단원별로 단편적인 이해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모든 단원을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며, 다음의 사항들을 감안 하면서 공부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2차 시험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기본에 충실한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 2차 시험을 준비할 때에는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을 위주로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2차 문제라고 해도 1차 문제에서 자료의 사이즈가 커져 있을 뿐이기 때문에 결국은 탄탄하게 기본기를 쌓아 놓은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기본 예제와 과거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공부하면서 강의에서 다루어 드리는 문제를 추가 보충하는 방식으로 공부하셔야 합니다. 충실한 기본기가 고득점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반드시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둘째, 과거 2차 시험 기출문제는 최대한 확보해서 풀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에 기출 되었던 문제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풀어보는 것이 좋고, 이러한 기출문제들은 반드시 출제자가 의도하는 바가 있습니다. 문제에 나오는 자료들이 모두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출제자의 출제 의도와 관련된 자료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면서 풀어보는 것도 2차 시험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셋째, 1차 시험을 처음으로 합격하고 2차 시험에 처음 응시하는 동차생의 경우에는 모든 단원을 다 공부하겠다는 욕심보다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2차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시간은 부족한 상황에서 너무 많은 부분을 다 커버하려고 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는 중요한 부분을 위주로 공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활동기준원가계산, 종합원가계산, CVP분석, 관련원가분석, 표준원가계산, 신이론 중 목표원가계산과 같은 부분은 2차 시험에서 주로 나오는 단골 메뉴이기 때문에 유예생의 경우에도 필수적

으로 마스터 하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주요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집중 공략한 후에 시간이 되면 변동원가계산이나, 대체가격결정, 개별원가계산/정상원가계산, 불확실성하의 의사결정 같은 부분까지 공부하는 방향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로하겠지만, 원가관리회계는 이론 및 암기보다는 계산문제 중심으로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계산기를 이용해서 직접 손으로 풀아가는 공부방법이 필수적입니다.

누으로 해설을 보면서 공부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피해야 하며, 아무리 쉬운 문제라고 하더라도 모든 문제를 직접 손으로 풀어가면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각 단원별로 이론적 배경이나 장단점 등을 숙지해 놓으면 금상첨화겠지요.

다섯째, 반드시 2차 시험 답안지를 가지고 문제를 풀 때마다 시간을 재보면서 푸는 것이 실제 시험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시험은 정해진 시간 안에 정해진 답안지에 풀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학원 등에서 판매하는 2차 시험용 답안지를 구입해서 실제 시험 답안 작성하듯이 연습해보아야 합니다.

또한 한 문제 풀 때마다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도 체크해 보면서 풀어보면 실제 시험에서 시간 조절 하는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원가관리회계는 중급회계나 세법학 보다는 투입시간 대비 산출이 큰 과목이라 판단되며, 적은 시간으로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위의 사항들에 유념하면서 전략적으로 적절한 공부량만 투입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 강의주안점

1. 기본에 충실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체적인 틀을 잡을 수 있도록 전체적인 내용정리와 함께 문제를 풀이해드립니다.
2. 계산문제가 아닌 기술형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각 단원별로 이론적인 요약정리를 해드립니다.
3. 기출문제와 원서에 나오는 문제 중 교수님들이나 출제위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들을 발췌해서 집중적으로 강조해 드립니다.
4. 각 문제마다 문제의 출제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5.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회계학 2부 - 세무회계

▶ 출제경향

CTA 2차 세무회계에서는 법인세 50%, 소득세 30%, 부가가치세 20% 정도의 비율로 출제되고 있고 상속·증여세도 출제범위이긴 하나 최근 상속·증여세는 출제가 안되고 있다.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큰 차이점은 2차시험은 모두 주관식이고 이론 문제 보다는 문제풀이의 비중이 절대적이며, 법인세의 비중이 크지 않았던 1차에 비해서 법인세의 비중이 크므로 법인세에 대한 대비를 집중해야 한다. 세무회계는 2차시험에서 가장 어렵게 출제될 수 있는 과목이기도 하여 기본적으로 가장 많은 시간이 투자되어야 한다. 최근 5년간의 경우에 과락률이 평균 60~70%로 합격의 당락을 결정할 만큼 중요한 과목이라 할 수 있다.

다음은 최근 년도별 기출된 출제파트를 분석한 내용이다.

세 무 회 계	법 인 세	15년	1. 세금과 공과금, 출자전환, 의제배당, 인건비, 기부금, 감가상각비, 고가매입, 지급이자 2. 청산소득, 최저한세
		16년	1. 업무용승용차, 퇴직급여, 접대비, 보험차익, 대손금, 기부금 2. 외국납부세액공제, 지급이자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17년	1. 개발비, 재고자산, 접대비, 주식취득처분, 의제배당, 주식선택권 2. 연결납세
		18년	1. 의제배당, 유가증권,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2. 접대비, 무형자산(사용수익기부자산), 손익의 귀속시기, 불공정자본거래
		19년	1. 국고보조금, 불공정자본거래,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2. 기부금, 감가상각비,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외국납부세액공제, 최저한세
		20년	1. 합병 2. 장기할부, 접대비, 기부금, 토지 등 양도소득
		21년	1. 고가매입, 불공정감자 2. 임원퇴직금, 토지 등 양도소득, 결손금소급공제

세무회계	소득세	15년	1. 금융소득, 동업기업과세특례, 양도소득, 성실사업자
		16년	1. 금융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17년	1.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양도소득
		18년	1. 금융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19년	1. 금융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
		20년	1. 금융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양도소득
		21년	1. 근로소득, 소득공제, 세액공제, 결정세액
	부가가치세	15년	1. 부동산임대소득, 일괄공급, 매출세액신고서식작성, 매입세액신고서식작성, 매입세액공제신고서식작성
		16년	1. 매출세액, 매입세액 신고서 작성, 폐업 시 잔존재화
		17년	1. 매출세액, 매입세액
		18년	1. 매출세액, 매입세액
		19년	1.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매입세액
		20년	1.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매입세액
		21년	1. 과세표준, 의제매입세액, 과세전환 매입액, 간이과세

▶ 수험전략

1차시험이 끝나자마자 결과 확인 후 바로 2차 준비를 시작해야 하고 1차준비를 통해서 전체적인 이론은 정리가 되었겠지만 1차수준의 정리이므로 다시 한번 2차수준의 이론정리가 필요하다. 또한 법인세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부족할 것이고, 객관식 문제 풀이에 익숙하다 보니, 주관식 답안 작성에 익숙하지 않아 빠르게 답안 작성을 하는데 익숙해져야 한다. 그리고 최근에는 난이도가 높지 않은 문제가 출제되고 있어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하는게 중요하다. 다음은 수험전략을 요약한 것이다.

첫째, 단권화하고 회독수(3회독 이상)를 늘리자.

자신이 선택한 세무회계책을 여러번 회독수를 늘려서 자기만의 풀이 방법과 개념정리 하는 것이 고득점의 지름길이라고 하겠고 중간중간 진도별 모의고사를 통해 학습 내용 파악 및 답안작성 훈련을 해야한다. 실제로 세무회계를 공부하면서 다른 책이 더 좋아 보이고, 다른 책에는 내 책에 없는 문제가 있을 듯 해 보이고, 다른 책에 있는 문제가 출제될지도 모른다는 생각들겠지만 모든 책은 거의 기출문제로 이루어져 있고, 일부 책만 기출문제를 변형한 것에 불과하므로 어느 교재이든 상관없이 회독수를 늘려 반복해야지 고득점이 가능하다.

둘째, 답안 작성 연습을 충분히 하자.

2차 시험을 주관식 시험이므로 객관식에서 공부하듯이 답안을 유추할 수도 없고 보기에 답이 없으면 틀렸다는 피드백도 할 수 없다. 그래서 평소에 자신감있게 풀고 답안 작성의 연습을 해야 실제 시험에서 불필요하게 답안 작성으로 인한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다. 효율적인 답안 작성을 통해서 시간도 줄이고 문제 풀이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려면 연습할때부터 2차 답안지에 답안 작성을 훈련해야 한다. 최근 경향을 보면 풀이과정도 중요할 수 있지만 문제가 많고 문제에 답안양식을 주는 경우에는 답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경우 풀이과정을 줄여 시간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

셋째, 넓은 시야로 접근하자.

2차 공부를 할 때에는 객관식 때처럼 시간의 틀 안에서 해답을 구하는 것보다는 넉넉한 시간 내에서 해답을 구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서로 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넓게 생각하고, 넓은 시야를 볼 수 있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또한 법인세 안에서도 단편적인 부분만을 공부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고 여러 주제가 결합된 문제도 출제되기 때문에 하나의 테마가 아닌 여러 테마를 복합적으로 생각하고 세금 계산을 할 수 있는 넓은 시야를 갖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 강의주안점

종합반에서는 아래와 같은 강의주안점을 가지고 집중 공략한다.

첫째, 출제경향에 맞춰 공부방향을 공략한다.

출제경향을 보면 법인세법은 각론형식으로 출제되고 있고 소득세, 부가가치세는 종합문제 스타일로 출제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은 전체 계산구조의 틀 확립 후에 각 과정별로 학습해야 할 세무적인 내용들을 포함시키면서 구조화시키는 작업을 해야 한다. 회계학 2부에서 세무회계를 철저히 학습하게 되면 세법 학 1, 2부의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을 대부분 커버할 수 있다.

둘째, 문제풀이 순서를 통해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을 공략해라.

회계학 2부의 출제형식은 문제1에서 법인세 각론이 7~8문항이 출제된다. 문제2에서는 법인세 특수분야 부분이 출제되는 경향이 있고 문제3에서는 소득세의 종합 문제 유형, 문제4에서는 부가가치세 종합문제 유형이 출제된다. 문제풀이는 법인세 1(문제1), 부가가치세(문제4), 소득세(문제3), 법인세2(문제2)이런 순서로 푸는 방법을 추천한다. 그러나 이것도 최근 기출형태를 보면 달라질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문제를 풀다가 익숙하지 않거나 처음보는 스타일의 문제를 뒤로 미루고 푸는 것을 절약하는 방법일 것이다.

셋째, 어려운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쉬운 문제를 자신있게 풀수 있도록 하자.

자신 있고 쉽게 느껴지는 부분은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자신 없고 어려운 부분은 모두 다루지 말고 선택적으로 접근해서 2차 시험 직전까지 부분점수 확보 전략으로 가야 한다. 2차 시험은 문제의 크기는 클 수 있어도 부분 점수로 세분화 되어 있다. 따라서 여러 문항에서 골고루 점수를 확보는 방법으로 접근 해야 한다. 따라서 법인세법의 경우 어려운 부분은 과감히 포기하고 잘 할 수 있는 부분을 선택하고 집중화하여 여러 문항에서 각 문항 내 부분점수를 노려 전체 점수를 올리는 것이 효율적이고, 소득세법과 부가가치세법은 특수파트를 제외하고는 전체내용을 고르게 준비하자. 특히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법은 정답률이 현저히 떨어 지므로 더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하여야 하고 법인세법의 경우 어려운 부분은 과감히 포기하고 잘 할 수 있는 부분을 선택하고 집중화하여 점수를 올리는 것이 효율적이다.

4. 세법학 1부, 2부

I. 세법학 1부

▶ 출제경향

세법학 1부	국세기본법	15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16년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17년	1. 세무조사 재조사 2. 부분세무조사와 통합세무조사 3. 재조사 허용사유
		18년	가산세의 의의, 법적성격, 감면사유
		19년	1.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국세부와 제척기간 2. 실질과세원칙
		20년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21년	중복 세무조사, 재조사 금지, 세무조사 범위 확대
	법인세법	15년	1. 양도소득 개념, 1세대 1주택비과세 취지, 겸용주택 과세 2.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16년	1. 비영리내국법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근거와 범위 2.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업무무관가지급금 손금불산입 요건
		17년	1.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2. 분식회계에 따른 경정세액공제 3. 횡령시 소득처분
		18년	1.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요건, 경제적 합리성 2. 시가 및 시기입증책임의 귀속 3.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여부 판단
		19년	1. 사례금-판단방법, 소득금액의 계산, 과세방법 2. 사례금과 인적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의 부과처분
		20년	1. 외국법인과 실질적 관리장소의 의미 2. 국내사업장의 고정된 장소 3. 추계결정 사유 및 이월결손금 처리방법
		21년	건설자금이자, 상표사용권 감가상각, 업무무관자산 관련이자, 부동산 매매업

세 법 학 1 부	소득 세 법	15년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2. 출자전환 채무면제액
		16년	1. 계약의 위약, 해약으로 인해 받는 소득이 기타소득이 되기 위한 요건 2.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양도대금 채권을 양도 시 소득의 종류, 과세방법 및 수입시기
		17년	1. 공동사업 합산과세의 요건 2. 공동사업시 종합소득 계산 3. 공동사업시 절세방안
		18년	1. 기타소득의 계약해제 과세문제 2. 양도소득의 양도시기 3. 계약해제와 양도소득 과세대상
		19년	1. 사례금-판단방법, 소득금액의 계산, 과세방법 2. 사례금과 인적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의 부과처분
		20년	1. 이자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 2. 공동사업과 배당소득
		21년	근거과세원칙, 추계 결정·경정 사유, 기준경비율
	상 증 법	15년	1. 명의신탁증여의제 2. 증여재산의 반환
		16년	1. 동거주택의 상속공제이의 및 요건 2. 상속공제적용 한도
		17년	이혼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문제
		18년	1. 상장주식 증여재산 평가 2. 고가양도시 증여재산가액 계산 3.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과세여부 판단
		19년	1. 공동상속인의 상속세 납세의무, 세액, 연대납세의무 2.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시 증여세 부과
		20년	1. 증여의제와 증여추정의 비교 2. 저가양도시 증여규정 3. 사업기회 제공에 따른 증여의제
		21년	재산평가 특례(저당권), 증여재산가액 계산, 법정결정기한

▶ 수험전략

① 국제기본법(25점 내외)

보통 판례 등을 바탕으로 사례형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세법지식을 바탕으로 사례형 문 제에 답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법의 기본지식을 숙지하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눈술과목의 특성상 정확 한 답변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모범 답안보다는 본인이 재구성한 논리전개 답안에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② 법인세법(25점 내외)

계산형은 회계학 2부에서 물으므로 세법학에서는 계산형태 방식이 아닌 특수이론 주제를 심도 있게 묻는 형태를 취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③ 소득세법(25점 내외)

계산형은 회계학 2부에서 물으므로 세법학에서는 계산형태 방식이 아닌 특수이론 주제를 심도 있게 묻는 형태를 취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25점 내외)

나머지 세목과는 달리 1차 시험에서 접하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지 않고 시험장에 들어가면 과락이 나오는 세목입니다. 따라서, 1차시험 후 바로 학습이 되어야 하며 사례형으로 출제가 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II. 세법학 2부

▶ 출제경향

세 법 학 2 부	부 가 가 치 세 법	15년	1. 전지역 용역의 공급 과세특례
		16년	1. 용역의 무상공급 시 과세여부
			2.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
			3.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유
			4. 간주공급에 대해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것에 한정하는 이유
17년	1. 재화용역의 정의, 구분기준, 수탁가공사업자의 업태 2. 토지의 임대용역, 주택부수토지의 임대용역, 임야 임대용역 3. 미가공식료품의 면세규정, 음식점업 과세여부 4. 부수재화 및 부수용역		
18년	1. 매입세액불공제 내용 및 이유 2. 매입세액공제와 세금계산서 3. 대손세액공제 내용 및 처리방법 4. 대리납부의무 판단 및 외화지급시 적용환율		
19년	1. 오피스텔 신축판매업자의 과세문제 2. 건물 신축공사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3.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공제 특례		

세 법 학 2 부		20년	1. 신탁관련 납세의무자 2. 신탁재산의 물적납세의무	
		21년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선발급 세금계산서, 비상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여부	
	개 별 소 비 세 법	15년	1. 개별소비세의 과세요건, 과세시기 및 신고,납부절차 2. 미납세반출	
		16년	1. 장애인용 승용차 면세특례 : 장애인의 범위, 장애인 승용 자동차의 범위, 면세특례 적용절차 2. 장애인이 구입한 승용자동차 사후관리	
		17년	1. 미납세반출 취지와 절차 2. 미납세반출 재화를 제조장으로 환입한 경우 및 자신의 판매장으로 판출한 경우의 과세여부	
		18년	1. 담배 과세요건 및 과세시기 2. 담배 미납세 반출 특례	
		19년	1. 수출 및 군납면세 사후관리 2. 외교관 면세 사후관리 3. 면세 반출 승인신청	
		20년	고급가방 관련 개별소비세 세무처리	
		21년	골프장 과세방법, 입장행위 면세, 과세유흥장소의 과세방법	
		지 방 세 법	15년	1. 과점주주 요건 2.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16년	1. 신탁재산의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2.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17년	1. 취득세 신고납부 2. 취득세 세율
	18년		1. 경락시 취득세 과세표준 2. 경락에 대한 취득유형의 판단	
	19년		1. 신탁재산에 속하는 토지의 과세방법, 압류방법 2.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20년		1. 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 및 취득시기 2. 경정청구 사유	
	21년		조합원 및 비조합원의 취득세 납세의무	
	조 특 법	15년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16년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특례	
		17년	1. 조세특례의 정의 2.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세 법 학 2 부	조 특 법	18년	1. 정규직전환시 근로소득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2. 월세세액공제 3.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19년	1.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2.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3.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20년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 및 사후관리
		21년	1. 기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2.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수험전략

① 부가가치세법(25점 내외)

사례형태가 아닌 주로 이론 서술형태로 출제가 됩니다. 1차 시험을 착실히 준비하신 분도 쓰실 수 있도록 출제가 되고 있어 준비에 큰 어려움이 없는 세목입니다.

② 개별소비세법(25점 내외)

사례형태가 아닌 이론 서술형태로 출제가 됩니다. 개별소비세 조문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학습분량은 많지 않으나 구석구석에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세심한 암기가 필요한 세목입니다. 1차 시험에는 없는 세목이므로 1차 시험이 끝난 후 바로 준비가 되어야 하는 세목이기도 합니다.

③ 지방세법(25점 내외)

지방세 중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가 출제범위이며, 주로 이론형으로 출제되거나 사례형태로 출제가 되는 경우 문제 접근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역시, 1차 시험에는 없는 세목이므로 1차 시험이 끝난 후 바로 준비가 되어야 되는 세목입니다.

④ 조세특례제한법(25점 내외)

2~3개의 조문이 사례형태가 아닌 이론 서술 형태로 출제되고 있으며, 암기할 분량이 많아 암기력을 많이 요구하는 세목입니다.

▶ 강의주안점

1. 이론 서술형으로 출제되는 세목은 논제를 압축해 집중해서 정리하고, 단순 암기를 요구하는 것은 내용을 이해하고 그 후 암기에 도움이 되도록 요약서브를 제공해 드립니다.
2. 사례형태로 출제되는 문제에 대한 답변을 기재할 때는 문제출제의도와 상관 없이 장황하게 논술하는 것을 피하고 요점을 정확히 파악해 서술해야 하므로 쟁점파악과 결론 도출에 주안점을 두고 출제가능한 사례 등으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3. 효과적인 시험준비가 될 수 있도록 1차 시험과목에 해당하지 않는 세목을 먼저 진행하고, 1차 과목에 해당하는 세목은 나중에 진행합니다.
4. 실제로 본인이 직접 답안을 작성하지 않으시면 과락이 나올 수 있으므로 문제 (예상 또는 기출)를 따로 나눠드려 충분한 연습이 될 수 있도록 진행됩니다.

